

2008년 출판 발행부수 20% 감소 경기침체 영향 ... 종수는 소폭 증가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의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납본된 도서를 기준으로 출판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지난 1년(2008.1.1~12.31) 동안 출현을 통해 납본된 신간 도서(정기간행물 및 교과서 등 제외)의 발행량 및 분야별 현황, 평균 정가, 평균 면수 등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신간 발행량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신간 도서의 발행량은 총 4만3099종(만화 포함)이며, 발행부수는 1억 651만5675부로 나타났는 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발행 종수는 4.9%(▲2005종)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발행부수는 19.6%(▼2598만7444부)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출판계 또한 종이값 인상 등 적잖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471부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3.4%(▼753부)가 감소하였으며, 한 권당 평균 정가는 1만 2116원(2.0% 증가), 평균 책의 면수는 267쪽으로 집계되었다.

분야별 발행 종수 현황

2008년에 총 4만3099종이 발행되었다. 이 가운데 총류 분야가 59.6%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동 19.53%, 사회과학 13.6%, 문

학·어학(각 9.4%), 역사 8.7% 순으로 늘어났고, 기술과학은 12.2%로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철학 11.3%, 만화 10.3% 등 세 분야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발행 부수 현황

발행 부수는 총 1억651만5675부로 집계되어 전년(1억3250만3119부) 대비 19.6%의 감소를 보였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종교 분야로 무려 185.4%로 대폭 증가했으며, 총류 60.7%, 사회과학 16.7%, 역사 14.8%, 어학 13% 등으로 증가하였고, 아동분야는 전년에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던 분야이었으나 1년 사이 가장 많은 감소(52.6%)율을 보였다. 이외에 기술과학 21.5%, 철학 18.6%, 만화 6.5%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아동으로 2688만5334부가 발행되어 전체 발행부수의 23.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학(15.59%), 만화(14.95%), 학습참고(12.04%), 사회과학(9.59%) 순으로 집계되었다.

2008년도 출판 통계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평균 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총류	515	822	59.6	1,005,637	1,615,604	60.7	1,953	1,965	0.7	18,254	18,782	2.9	402	392	-2.4	
철학	1,066	946	-11.3	2,125,001	1,729,434	-18.6	1,993	1,828	-8.3	14,513	16,835	16.0	333	344	3.4	
종교	1,980	2,009	1.5	1,539,139	4,393,048	185.4	777	2,187	181.3	12,473	13,292	6.6	381	440	15.4	
사회과학	5,579	6,335	13.6	9,302,706	10,853,406	16.7	1,667	1,713	2.7	17,777	17,587	-1.1	396	388	-2.0	
순수과학	565	593	5.0	787,308	761,324	-3.3	1,393	1,284	-7.9	19,219	22,960	19.5	354	366	3.5	
기술과학	3,135	2,754	-12.2	4,637,466	3,641,274	-21.5	1,479	1,322	-10.6	21,034	21,142	0.5	388	391	0.8	
예술	1,441	1,451	0.7	2,075,179	2,264,538	9.1	1,440	1,561	8.4	17,750	18,465	4.0	245	243	-1.0	
어학	1,667	1,823	9.4	3,581,105	4,048,329	13.0	2,148	2,221	3.4	15,087	15,668	3.9	306	326	6.4	
문학	7,752	8,482	9.4	17,323,993	17,640,805	1.8	2,235	2,080	-6.9	9,658	9,845	1.9	311	304	-2.3	
역사	1,048	1,139	8.7	1,873,392	2,150,681	14.8	1,788	1,888	5.6	21,346	19,963	-6.5	390	370	-5.4	
학습참고	1,749	1,787	2.2	13,408,947	13,620,755	1.6	7,667	7,622	-0.6	9,460	10,373	9.6	207	202	-2.4	
아동	7,307	8,417	15.2	56,747,059	26,885,334	-52.6	7,766	3,194	-58.9	9,224	8,536	-7.5	103	100	-3.5	
계	33,804	36,558	8.1	114,406,932	89,604,532	-21.7	3,384	2,451	-27.6	13,533	13,494	-0.3	288	285	-1.0	
만화	7,290	6,541	-10.3	18,096,187	16,911,143	-6.5	2,482	2,585	4.2	4,173	4,413	5.7	161	165	3.0	
총계	41,094	43,099	4.9	132,503,119	106,515,675	-19.6	94.15%	3,224	2,471	-23.4	11,872	12,116	2.0	266	267	0.6

2008년도 신간 번역도서 장르별 현황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만화	언어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계
발행종수	126	569	889	1,646	236	549	383	2,472	102	2,478	347	8	3,586	3,391
증감률(%)	61.5	-0.4	11.7	14.9	6.8	12.7	-13.7	-6.6	-46.9	5.5	19.7	166.7	27.6	8.7
2007년 발행종수	78	571	796	1,433	221	487	444	2,646	192	2,349	290	3	2,811	2,321

종당 평균 발행부수 2471부, 평균 책값은 1만2116원

도서의 한 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2471부로 전년 같은 기간 (3224부) 대비 23.4%가 감소하여 출판계 불황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종당 평균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종교분야만이 181.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을 뿐이고, 다른 분야는 소폭 증가 및 전체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었는 바, 아동분야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인 58.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평균정가는 1만211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값이 가장 비싼 분야는 순수과학 분야로 2만2960원이며 전년대비 19.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술과학(2만1142원), 역사(1만9963원), 총류(1만8782원) 등으로 나타났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분야는 만화(4413원), 아동(8536원), 문학(9845원) 순이었다.

평균 면수는 267쪽

한 권당 평균 면수는 267쪽으로 전년도 266쪽에 비해 0.6%가 늘었다. 가장 두꺼운 분야는 평균 440쪽의 종교 분야로써 전년에 비해 15.4%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아동은 평균 100쪽으로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얇은 분야로 나타났다.

번역도서 발행 현황

전체 발행종수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1%(1만3391종)였다.

이 중 아동도서가 3586종 번역되어 가장 많았고, 문학(2478종), 만화(2472종), 사회과학(1646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언어권별로는 일본(4592종), 미국(3992종), 영국(1129종), 프랑스(820종), 독일(599종), 중국(507종)순이었다. ↻